支那佛敎史蹟第五輯을보고

金素荷

關野·常盤兩博士가 終生의大業으로써 二十年間前後七回의渡支踏査의收穫에關한 支那佛敎史蹟을今回最後의第五輯이 創行되엿다。同書는學術의珍寶로서 世界學界의推讚을博하야온바이어니와 編纂以來滿二個年 今夏에全部를完成하야 學界不朽의貢獻을바치게하엿다。

第五輯은 五臺山·楊州·西湖·寧波·普陀山·北京等의史蹟을 收한것인바 就中古來文殊의靈地로서 四大名山에 一數를제우는 山西의五臺山은 다못巡禮의靈地로써 이름이놉흔만아니라 支那佛敎의骸髓인 華嚴哲學을 發達徹底케한 淸凉大師澄觀의舊棲地로서 支那의佛敎遺蹟中 特히重要한地位를占하는곳이다。

華嚴經中에說한 東北淸凉山이라한것이 此山을가르친것이라하며 또는文殊菩薩이此地에居하엿다해서 支那佛敎徒가 此山을崇拜할만만아니라 멀리印度까지도 此山의靈名이傳하야 雪山파가치이름이놉핫슴으로 印度의佛敎徒도 此山의巡禮行을 그칠새가업시 續行하엿다한다。

五臺山과華嚴經의信仰關係는 北魏時代로부터잇거니와 唐代에이르러서는 印度의佛陀波利가 文殊菩薩을 拜禮코저하야 此山에登할새 道中에一人의老翁을遭遇하야 그의敎示에依하야 다시印度에도라가서 「佛頂尊勝陀羅尼」의 梵本을齎來하야 此山에서此를飜譯流通하엿다함은 有名한事蹟이다 支那各地에 存在한石幢에 흔히尊勝陀羅尼를刻하고 佛陀波利의因緣을 前置한것은 如此한由緣가잇는일이다。

그렇으로支那의五臺山은 支那에서만 著名할뿐이아니라 東洋諸國에 이름이놉핫스며 또는朝鮮

의江原道五臺山과도 關連되야 幾多의異蹟이傳하게되엿다。朝鮮의五臺山을 文殊菩薩의靈地라하고 古來로 幾多의異蹟과傳說이잇스며 朝鮮佛敎徒巡禮의目標가되고 信仰의焦點이된것도 此亦支那五臺山의影響이波及함이아닌가하고생각한다。

支那의五臺山으로말하면 淸凉大師가 華嚴經을講說하신곳으로써 又는朝鮮佛敎가敎學으로는 華嚴經의中心이되엿든것으로써 朝鮮佛敎界와特別한因緣이잇는靈地라하겟다。

曾年에筆者의親法師 洪月運禪師께서 十數年間支那南北의各地를漫遊하시고 五臺山을經由하야安居하시고 歸國하시엿다하며 五臺山을 極口讚頌하심을드럿다。그러나其時에는 魚魯를不辨하는 幼少한때엿음으로 尋常히드러지내고마랏다。그러다가 今回常盤博士門下에배우게되며 支那佛敎史蹟을編輯하다가 五臺山을寫眞으로라도 親見하고博士의게來歷을詳聞하니 過去의記憶이새로우며 敬虔한思慕의情이간절하다。

支那佛敎史蹟에對하야는 屢屢히紹介도하고 所感도述하엿거니와 最終의第五輯을完結하고 默過할수업는지라 感想의一編을 述하야同學伴侶의參考로써紹介하노라。

新刊紹介

六堂崔南善先生著

白頭山覲參記 全一冊 總三百八十頁 定價一圓六十錢 書留送料二十錢

◇美本洋裝金文字入·參考插畫地圖并數十葉◇

이글은先生의個體의어어니의小綠남에朝鮮의어머니인白頭山의絕頂에올라서玲瓏絢爛한天池를구버보며天地의大神靈과造化의眞面目을친우으로호자맛아가지고極域三千里와檀史五千年에파르러지교광자리는어느구엿하나의胎盤胚孕가되지아닌것이업는靈境秘機를覲參하는靈感·健筆로活寫·窮計한一大雄篇偉編이라此書가一出함에古今來幾多의白頭山을踏破한者와白頭山을記錄한者는纖毫皮相에그쳣다는綠을逃할수업게되니實로白頭山이잇슴以後初有의奇文秘走神筆로다白頭의靈祇에아니한를免生의樣態를곳이업고先生의健筆이아니한를白頭를靈秘를披露하리누구이랴此書를一讀하면누구나六月炎天과千里遠程에萬尺의靈峰을도두밟는것을과못는쌈에天池天鳳에一遊輯幕하는感을同得하리다

發賣所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ノ〇番